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한 발자국 나아간다.’ 이 수 수께끼 같은 문장은 지난 며칠 AI관련 기사들을 보며 든 생각이다. 한 주간의 종이 신문은 펼쳐 놓고 AI 관련 기사만 모아 보니 광고를 제외하고도 무려 30개가 넘는다. 근래 기술 발전이 유독 특별했던 것일까. 지난 월요일에는 챗GPT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과목에서 고작 한 문제를 틀리고 ‘만점’을 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국어 점수의 변화만 보더라도 AI의 자가 학습하는 일취월장의 기세는 놀랍기 그지없다. 지난해 GTP 모델이 16점을 득점한 반면에 올해 5월 출시된 GTP-4o 모델은 75점까지 점수를 높였다. 결국 해를 넘기기 전인 12월 초 등장한 새로운 GTP가 거의 만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적 범위를 가진 AI를 뜻하는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등장은 초읽기 수준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10일 노벨상 수상식에서는 우리의 한강 작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아주 무더웠다. 압대 전, 모내기를 마친 6월 끝자락, 작정한 마음을 달래려고 무작정 나섰는데 운주사였다. 심란하고 울적할 때, 운주사는 어머니처럼 위로와 위안을 받는 곳이었다. 절이리기보다 고향, 혼자 숨어 있기 좋은 다락방 같은 곳, 잠시만 있어도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평소에도 인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목탁 소리도, 풍경소리도, 박새 우는 소리도 없었다. 구름 속 운주사 이뻐처럼, 마치 절이 공중에 떠서 구름 속에 있는 듯했다. 공 둥둥! 그런데 얼마 후,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공사 바위 짝이었다. 굴착기 한 대가 요란하게 수로를 확장하고 있었다. 길, 물길을 내고 있었다. 길을 내다 보니 그 바위와 돌 부스르기들이 자연히 버려지고 문혔다. 굴착기에 부서진 그 돌 부스르기들이 부처의 몸통이고 손이고 머리였으며 바로 운주사였다. “저는 모릅니다. 시킨 대로만 하죠” 지금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다는 말에 짜증 섞인 기사의 대답이었다. 법화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한 경전이다. 부처를 직접 밟고자 한 대오섬의 요청으로 여래의 백호

기고



공순환
전 광주중학교 교장
밀알중앙회 감사원장경대학 강사

인간의 편의성 추구로 세상에 등장한 플라스틱은 한 세기를 누리며 현대문명의 필수소재로 자리 잡았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재로 플라스틱이 등장한 이래 20세기 급격히 발전하고 확산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플라스틱은 전쟁용품의 대체재로서 역할이 컸고, 전쟁 후 플라스틱은 대량생산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플라스틱은 주로 각종 가정용품, 전자제품, 가공용품 등에 이용되었다.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밀폐용기, 빨대처럼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혹자는 지금을 ‘플라스틱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플라스틱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 어려워 그 쓰레기는 오랫동안 남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소각, 바다에 버리기 등의 방법으로 처

2024년 오디세이

가 말고도 인류에 큰 울림을 전해준 이가 있었다. 토론토대 제프리 힌턴 명예교수는 자신의 물리학 노벨상 수상 소감을 통해 “최근의 개발 속도를 보면 ASI 개발 시기는 향후 5-20년이면 될 것 같다”며 과연 우리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를 제어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개발을 더욱 확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2023년 구글을 그만두면서 AI 개발은 멈출 수 없는 과열 경쟁으로 관리가 어려우며 AI가 초래할 부정확한 오류의 범람과 일자리 상실 등에 대한 위험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주 아마존에서는 2026년까지 AI를 사용하여 사내 중간 관리직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으니 그야말로 힌턴 교수를 비롯한 세계 석학들이 AI에 대해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에서 하나 둘 실증되는 셈이다. 과연 이런 급속한 개발을 예견할 수나 있었던 걸까. 194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은 인공지능 인 두뇌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1956년 다투머스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연구명의 이론이 발표된 뒤로 AI는 학문의 한 분야가 되었다.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AI 등장으로 AI 기술 역사상 큰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2016년에 있었고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SF영화의 장면이 현실처럼 그것도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땅에는 불국사, 하늘에는 운주사

에서 나온 빛에 따라 모든 분신 불이 모이자, 보배탑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하늘 가득 만다라 꽃이 쏟아졌다. 이어 석가모니께서 오른 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마치 잠겨 있는 자물쇠를 제치고 큰 성문을 여는 것 같았다.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는 어디든 나타나 증명해줬다는 다보불이 자리의 반을 나누어 권좌해 석가모니불이 사자좌에 등을 맞대고 앉아, 드디어 시작한 공중 법회. 조선이 들어서고, 불심은 충효 이념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국가에서 버려지고, 조정에서 버려지고 끝내 화전민에게 버려진 하늘의 불과 하늘의 탑, 천불천탑.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구름장으로 떴어가고, 화전민은 장독대로 떴어가고, 애 낳지 못한 여인네는 코를 때어가고, 누근기는 보배탑 문짝을 떴어가고, 경찰사에서 신고가고, 면사무소에서 들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겨가고... 구름 흩어지듯 소실된 운주사. 시시삼심 법당이 발이 되고, 법회 하던 곳은 눈이 되고, 시간이 쌓이고 해와 달이 덮이고 그렇게 또 한 겹, 또 한 층, 먼지처럼 퇴적된... 우리도 나날이 삶을 퇴적하며 산다. 학창 시절 소풍을 갔던 곳, 반백 년 전, 초파일이면 너나없이 모여 놀던 곳, 화순 도암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퇴적된 운주사. 그 단단한 퇴적층을 하나둘 벗겨낼 수는 없을까. 운주사 수로에 퇴적된 그 석불들의 숨통을 열 수는 없을까. 세워야 할 것은 와불이 아니라 아무렇게 붓고도 던져버린 부처가 아닐까.

플라스틱, 편리와 환경 오염 사이

리디어 환경에 큰 부담을 주었다. 한 예로 태평양에는 대륙간 플라스틱 섬(더미)이 존재한다. 이 플라스틱 섬(더미)은 프랑스 연직의 3배에 달하고, 무게는 800만톤에 이른다.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전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4억톤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생산된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금껏 생산된 플라스틱 양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식품포장, 전자제품, 가구, 자동차, 비행기, 의류, 건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도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먹이로 오인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5mm 이하 크기를 가진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뿐만 아니라 강, 호수, 토양, 식물, 공기 등에도 존재하며 생물의 몸 속에 쌓여 생체기능을 방해하고 독성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플라스틱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류의 과제로 여겨지는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방법은 역시나 인류의 공동 노력이다. 첫째,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셀룰로스, 전분, 식물성기름 등 자연소재를 이용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인다. 둘째, 미세플라스틱 검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행히 경남 창원시 소재 한국재료연구원(KIMS)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정확·신속하게 검출하는 기술을 연

우주와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 ‘2001: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제작된 건 AI가 체스와 바둑 게임의 세계 챔피언들을 이기기 훨씬 이전인 1968년이다. 아서 C. 클라크와 스탠리 큐브릭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존재를 상상했고 과학적인 사실성을 바탕으로 영화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SF영화를 만들었다. 영화가 제작된 해가 인간의 최초 달 착륙 전이며 핸드폰은 커녕 개인 컴퓨터도 없던 시대라곤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초인공지능의 존재 HAL 9000이다. 지루하다고 느낄 정도의 영화 속 긴 장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니체의 철학과 음악을 정교하게 짜 맞추어 어려운 영화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며 오랜 여운을 남긴다. 이처럼 인간의 진화와 기술의 진보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건 오래전이다. 그럼에도 가시지 않는 영화의 여운처럼 AI와 살고 있는 2024년 우리 사회에도 그 질문은 유효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당연하게 생각해진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본 한 해였다. AI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제재 없는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준비도 논의도 부실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의 사안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당면한 AI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사람보다 더욱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 시급한 사색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社說

탄핵심판 지연...파면 때까지 촛불 더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에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탄핵안 가결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1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강릉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집회 참석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장갑으로 무장한 채 ‘내란수고 윤석열 체포’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른 손에는 색색깔의 응원봉을 흔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파면을 촉구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75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켈기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란범죄자 윤석열, 내란세력 국민회합’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다 함께 찢는 파포먼트로 파면을 촉구하는 의지를 다졌다. 탄핵안 가결 후 파면 집회로 더 강하게

비상계엄 편드는 5·18 비하 용납해서는 안돼

12·3 비상계엄과 해제 이후 온라인상에는 1980년 비상계엄 아래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5·18’과 관련한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많은 사람들이 12월3일 비상계엄에 따른 공포를 겪은 뒤, 40여년전 5·18당시 계엄을 떠올리며 광주와 5·18의 아픔을 공유했다. 또한 1980년 과거 계엄의 경험이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신속히 끝낼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됐다든 사실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사이트 등에는 여전히 5·18을 폭동으로 지칭하며 비하하는 망언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수 사이트의 글들이 단순히 5·18을 폄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온라인에는 “계엄을 겪어보니 광주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1980년 5월의 광주에게 큰 빛을 지고

받지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탄핵심판 서류 수명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현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해서 우편과 인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도 판서와 대통령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1시간 만에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다음날 받은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는 비겁한 탄핵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작전은 국민들의 분노만 키워 역설적으로 파면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의 파면 촉구 촛불은 더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현재는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해 공식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無等鼓 🥁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에 ‘도량발호(跳梁跋扈)’가 뽑혔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뜻으로 권력자들의 무도한 행태를 빗댄 것이다. 교수신문은 최근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450명(41.4%)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를 선택했다. ‘도량발호’는 뿔 도(跳), 들보 량(梁), 밭을 밟(跋), 뒤따를 호(扈)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제안한 정태연 중앙대 교수는 교수신문에서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라며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추천 이유를 언급했다. 2위는 307표(28.3%)를 얻은 ‘후안무치(厚顏無恥)’가 차지했다. 일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후안무치’는 ‘낮잡아 두기 귀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

된다. 3위는 201표로 18.5%를 받은 ‘석서위려(碩鼠負旅)’가 뒤를 이었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뜻을 담고 있다. 오늘의 어지러운 시국과 정치권에 대한 질타로 보인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해마다 12월이면 교수들의 추천, 투표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왔다. 2021년에는 ‘도둑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묘사동처(貓鼠同處)’, 2022년에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괴이불개(過而不改)가 뽑혔다. 대체로 정치권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비윤리적 행태 등을 꼬집는 말이 선택돼 왔다. 사자성어는 교훈과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다.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반영하는데, 특히 공정과 상식을 팽개친 이들을 향한 준엄한 꾸짖음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24년간 선택된 사자성어는 부정적 일색이었다. 내년 이맘때 선정될 사자성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긍정적인 말이 선택됐으면 한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